

선장, 증거 인정 않고 혐의 부인... 또다시 분노의 법정

광주지법, 세월호 선원 15명 두번째 재판

1등 기관사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

유족들 울분 삼키며 끝까지 지켜봐

증거·증인 신청 놓고 검·변 신경전 치열

17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지난 10일 처음 열린 공판 준비기일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첫 재판 시작 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다가 이 선장 등 피고인들이 입장(入庭)하자 격한 분노와 원망을 퍼부었던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분노를 삼키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보다 피고인의 주장을 변론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한숨을 토해내며 감정을 절제하는가 하면, 변호인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법리 공방을 예고라도 하듯 검찰과 피고인을 대신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된 1900개 증거 채택 여부 및 추가 증거·증인 신청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들을 향해 “변호인께서 과연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는 건지, 그런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인지”라며 항의, 재판부가 “법조인인데, 법률적으로 정정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이라며 서둘러 중재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희생·실종자 가족들, 분노·원망 억누르며 재판 참관=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오전 10시 “2014고합 180 살인 등 사건에 관한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합니다”며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희생자 가족 80명은 재판 참관을 위해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법원에 도착,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 때 참석하지 않은 가족들이 대부분인 점을 확인, 재판 취지와 진행 절차 등을 재차 설명했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대부분의 희생자 가족들은 첫 재판과 달리, 한숨을 토해낼 뿐 감정을 꾸욱 억누르며 재판을 묵묵히 지켜봤다. 이 선장 등 선원들이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때도 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자는 듯’ 고개 숙인 모습과 말뚱히 살아 있는 모습에 분노가 차오르는 듯 “고개를 돌려”, “서있게 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10일 열렸던 공판준비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손모(57·1등 기관사)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본격 진행됐다.

◇증거·증인 신청부터 치열한 법리공방 시작=재판이 본격 진행되면서 예상됐던 검찰측과 피고인 변호인측 공방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했다. 증인 신청 및 증거 채택 과정에서 ‘신경질적인’ 논쟁이 펼쳐졌다.

검찰은 애초 공판준비기일에는 4명,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5명의 공판 관련 검사를 선정, 공소유지를 담당토록 했지만 이날 재판부터 박재영 강력부장을 중심으로 강력부 김영오·조영성 검사, 특수부 김현우 검사 외에 장성철 순천지청 검사까지 5명을 투입했다.

다만, 1등 기관사로 유기치사상,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 기소된 손씨의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손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선장 측은 검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공판 상태에서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구조에 나섰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강조, 책임을 회피했다.

◇단원고 학생 증인 나오나, 침몰 동영상도 공개될 듯=재판부는 이날 항후 공판 절차 및 증거·증인 신청 여부를 논의하면서 24일 오전시간에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곧바로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임 부장판사는 또 “공판에서 첫번째로 해야 할 게 뭐지 의견을 달라”며 검찰에 요청하면서 “영상 녹화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애초 검찰은 침몰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시간 분량의 영상을 법정에서 시청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첫 공판일이 당겨지면서 준비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오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 여객선이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서, 세월호 내부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다음달 22일부터 증인 신문 계획을 세우고 단원고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수업이 없는 기간인 7월 말~8월 초 2주 동안에는 생존 학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형사 재판 출석을 위해 고개를 숙인 채 호송바스를 타고 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생들의 증언을 듣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외 일반인 탐승객,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탄 해경 14명, 어업지도

선 승선원, 승무원과 함께 탈출한 필리핀 가수, 세월호 원래 선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 향후 법정에서 출석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마 다가오는데...

실종자 수습 9일째 무소식

장마를 앞두고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지난 8일 실종자 1명을 찾은 뒤 17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조류가 약해진 중조기를 맞아 지난 16일 오후 3시40분과 17일 새벽 4시50분께 수중 수색에 나섰지만 희생자를 수습하지 못했다.

이날 현재 실종자 명단에 오른 희생자들은 단원고 학생 6명을 비롯해 모두 12명. 실종자 가족들은 곧 닥쳐올 장마를 앞두고 희생자 수습이 장기화될 것을 염려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곧 장마가 오고 조류가 거세져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잠수사를 포함해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은 20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2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0일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장맛비는 21일까지 이어지다가 23일부터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17일 예보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참고서 잠자다 화재 직실 사망

지난 17일 오전 6시50분께 신안군 임자도에 사는 이모(85) 할머니가 농기계 보관용으로 사용하던 참고서에서 잠을 자던 중 불이 나 연기에 직실해 숨졌다.

불이 난 곳은 99.2㎡ 규모의 컨테이너로, 참고서 안엔 6.6m의 잠 잘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8년 전부터 지매를 맡아온 이 할머니는 4년 전 양양원에서 퇴원했으며 아들은 이 할머니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이 할머니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유병언 검문에 덜미 잡힌 절도범

○~지난해 6월 보호관찰범 위반 혐의로 지방수배된 30대 절도범이 유병언 검거 활동에 나선 형사들의 불심검문 때문에 덜미.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신모(34)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불심검문에 나선 북부경찰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는 것.

○~신씨는 지난해 6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됐는데, 경찰은 유병언과 관련해 불심검문을 하던 중 신씨에게 타인의 신분증이 세 장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신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배 탈출하듯 법정 짹짜게 빠져나가는 선장 봤느냐”분통

유족들 표정

일부 선원 조는 모습에 분 삭이지 못하고 흥분

17일 오전 9시께 단원고 학부모 등 유족 80여명은 관광버스 3대에 몸을 싣고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섰다. 9일째 실종자 수색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답답한 마음을 안고 법원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 눈에 띄었다.

지난 10일 유족들은 “네 놈들은 사람도 아니다. 금수다, 금수”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정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몸싸움을 벌였던 첫 재판과 달리 이날 법정 밖은 대체로 차분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휴정시간에 법정 밖으로 나와 분통을 터뜨렸다.

“법정 빠져나갈때 선장 보셨나요. 애들 가만 있으라고 하고선 맨 먼저 배를 탈출할 때 처럼 짹짜게 움직이는 거 ○○아빠

도 보셨나구요”, “너희들은 살아 숨쉬며 뻔뻔하게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답에 배에서 아들 찾으면 얼굴 들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한숨만 내쉬던 엄마들 어깨위로 부슬부슬 비가 내려 앉았다. 엄마의 손이 눈물을 닦아낼 때마다 처진 어깨가 들쭉거렸다. 연신 담배 연기를 들이키던 아빠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선원들이 내뱉었던 말들과 불췌했던 태도에 대해 얘기했다.

법정 심판대 앞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선원들에게는 재판이 지루했을까. 단원고 학부모들은 일부 선원들이 꾸벅 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자기 가슴팍을 톡톡 내리친 아빠도 여럿 있었다. 빗발 선 눈을 부릅 뜬 재판 도중 법정을 뛰쳐나온 아빠도 있었다. 수학여행 보낸 아들은 63일째 품에 안아보지 못한 아빠는 울먹였다. “내 자식이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자꾸 자꾸 아니라고잖아요, 애들

을 죽인 건 자기들이 아니라고잖아요.”

한편 유족들은 재판 시작 전과 휴정시간을 이용해 법원 안팎을 돌며 ‘세월호의 진실, 국민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건네며 실제적 진실 발견에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2명 사망 292명
 ※ 세월호 참사 63일째
 17일 오후 8시 현재

지리산 노블랜드

즉시입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40~50%정도 대출가능
28평(26실) 9800만원	
56평(1실) 1억9600만원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입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거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